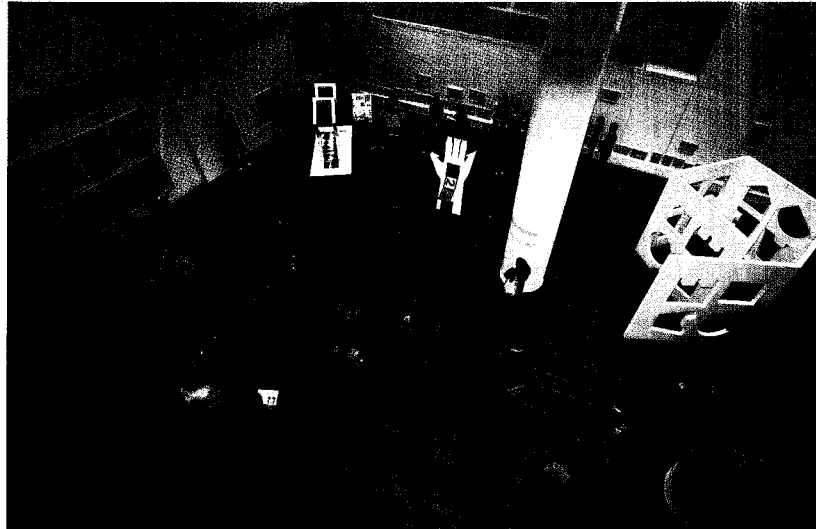




온 가족이 떠나는 세계 그림책 여행

CJ문화재단이 주최하고 CJ그림책축제사무국이 주관한 제3회 CJ그림책축제가 구랍 8일부터 28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서소문 중앙일보1층)에서 열렸다. 상상력과 독특한 개성을 바탕으로 한 그림책은 어린이뿐 아니라 전 세대를 포용하는 장르이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아이콘이다. 2010년 CJ그림책축제는 <‘CJ그림책상’ 수상작展>과 <한국 창작그림책 초청展>으로 구성되었다.



‘CJ그림책상’ 수상작展

세계의 그림책 작가들이 선망하는 시상제도로 자리매김한 ‘제3회 CJ그림책상’은 총 44개국 1557작품의 응모(일러스트레이션 부문 1110작품(37개국), 신간 그림책 부문 447권(29개국))으로 이뤄졌다.

제3회 CJ그림책상은 1회, 2회와 마찬가지로 미출간된 그림책 원화 부문(일러스트레이션 부문)과 3년 이내 출간한 신간 창작 그림책 부문(신간 그림책 부문)을 두어 각각 순위 없이 최종 다섯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전 세계 출판사와 작가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응모 접수를 받았다. 이 중 국내 그림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단이 신간 그림책 100권과 일러스트레이션 50점을 선정했으며 이 작품들이 그림책축제에 전시되고 도록에도 실렸다.

한국 창작그림책 초청展

제1회 <데이비드 위즈너展>, 제2회 <크베타 파초브스카展>에 이어 제3회는 한국 창작그림책의 지난 20여 년간의 흐름을 짚어보는 특별전으로 개최됐다. 해외도서전의 주빈

국으로 참여하면서 소개된 국내 창작도서와 해외 도서시장 관련 수상작을 포함한 130여권, 40여명 작가의 원화 100여점과 해외에 번역되어 출간된 도서 50여권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특별전에는 백두산 이야기(류재수 지음, 1998)부터 달사베트(백희나 지음, 2010)까지 20여 년간의 국내 창작그림책의 흐름을 주도했던 홍성찬, 이억배, 권윤덕, 이태수, 권혁도, 김세현, 백희나, 이호백, 이수지, 고경숙, 한병호 등 40여명의 국내 대표작가의 원화와 국내의 대표 창작 출판사인 길벗어린이, 보림, 사계절, 비룡소, 보리, 창비, 재미마주, 웅진주니어, 시공주니어 등 29개 출판사의 작품이 총망라되었다.

우리나라 창작그림책은 <지하철은 달려온다(신동준 지음)>로 2004년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을 시작으로 국제 무대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해외에 하나 둘씩 번역 출간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림책 문화가 앞선 선진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어 저작권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 소개 번역된 국내 창작그림책 50여권도 같이 선보였다.

‘CJ그림책상’ 수상작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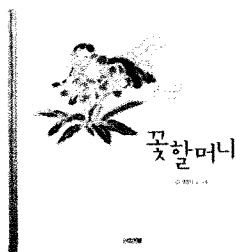
〈그림책부문〉



Dos pajaritos
 Writer & Illustrator_ Dioacho
 (Diego Francisco Sanchez)
 publisher_ Random
 House Mondadori



Ode to a Star
 writer_ Pablo Neruda
 illustrator_ Elena Odriozola
 publisher_ Libros del Zorro Rojo



English title_ The Grandmom who
 loves flower—the story of Japanese
 Army's 'Sexual Slave'
 Writer & Illustrator_ 권운덕
 publisher_ 세계절출판사



Le Petit Homme et Dieu
 english title_ The Little Man and
 God
 writer & Illustrator_ Kitty Crowther
 publisher_ Pastel, l'ecole des loisirs



Diapason
 english title_ The Tuning Fork
 writer & Illustrator_ Laetitia
 Devernay
 publisher_ Editions La Joie de lire SA

CJ문화재단 관계자는 “원화 작품 일부는 지난해 볼로냐 아동도서전 주빈국 행사로 세계 출판 관계자들에게 소개됐던 적이 있지만, 국내 대표작가들의 원화를 대규모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문화재단은 2009년 그림책 작가와 출판사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실 등을 인정받아 '09 볼로

〈일러스트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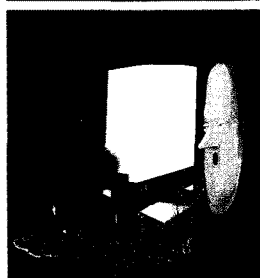
돈키호테는 상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영웅전과 기사도적인 이야기를 읽어 마침내는 미쳐 버린다. 그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전세계에 퍼진 불의에 대해 싸우기 위해 애마 로시난테를 타고 라만차를 떠난다. 그리고는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 그에 대해 싸우기도 하고, 죄수들을 탈옥하게 도와 주는 등 영웅적인 행동을 한 기사처럼 당당하게 여행을 계속하기도 한다.
 Title_ Don Quixote
 Name_ Soroor Yazd



굉장히 정리 정돈을 잘하는 성격의 남자가 수박이 없어져 당황한다.
 Title_ Las Sandias
 Name_ Nicolai Troshinsky



첫 낙엽이 지는 때, 떨어지는 잎들의 모험과 꿈에 관한 이야기.
 Title_ Leaf Fall
 Name_ Emma Vakarelova



마법의 미로에 빠진 소녀와 고양이와 모험에 관한 환상의 이야기. 이별과, 진실된 우정에 관한 우화다.
 Title_ The Red House
 Name_ Maria Mikhalskaya



멀리 어딘가에 있는 세 소녀. 낮과 밤, 영원이 지나간다. 사막과 같은 홍수진 꿈들은 꼭 어둠 속에 펼쳐져 우리를 꿈꾸게 하는 책과 같다.
 Title_ Three Girls
 Name_ Gabriel Pacheco
 Country_ Mexico
 Material_ Photoshop

냐아동도서전 조직위원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볼로냐 아동도서전의 메인 홀인 일러스트레이터스 카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등 전 세계 출판인과 작가들에게 CJ그림책축제의 의의와 취지를 알렸다.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